"내부의 팀웍강화 · 외부 고객과의 관계강화에 노력할 것"

6개월간 공석이었던 한국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CEO에 유원식(44) 사장이 선임됐다. 유원식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썬의 CEO 자리에 오기까지 본사 매니저들과 인터뷰하면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능력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의 기대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IT 산업분야에서 20년간 쌓은 경험을 발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원식 사장이 밝히는 한국 썬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취재 김진경 기자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아태지역 총괄 제이 퓨리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한국 썬을 이끌 이상적인 후보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펼쳐왔다"며 "향후 IT 업계의 미래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지니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전문가를 물색해왔다. 한국 썬이 이상적인 인물을 찾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썬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함께 비즈니스 통찰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고있었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 전통을 창출하는 열정적인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외 조건을 부합시키고 있는 유원식 사장은 중요한 사업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썬을 이끌 수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원식 사장은 성공하는 회사들이 갖추고 있는 3가지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기술에서 압도하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리딩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기술력'이다. 두 번째는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이다. 세 번째는 조직 내 · 외부적으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는 기업이다. 한국 썬도 이 요소들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는 말로 취임소감을 시작했다. "New Technology 부분은 한국 썬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사 차원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한국 썬은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협력사와의 관계를 잘 조정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유원식 사장은 "한국 썬은 지금까지 간접 판매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대형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HP에 있을 때 한국 썬의 그런 점을 공략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현대, 포스코, SK, 삼성 등 대형 고객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 사장은 "대기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파트너들과도 고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한국 썬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 한국HP 시절에 얻은 대형 고객 및 채널들과의 좋은 관계를 한국 썬의 사업과 결합해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HP와 컴팩의 합병 과정에서 유 사장은 HP에서 시스템 분야가 아닌 PC 분야를 맡게 되면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됐던 것.

내부 조직 변경에 대한 질문에 유 사장은 "한국 썬 인력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며 HP 등 다른 회사에서 당장 인력을 영입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HP 인력들의 한국 썬 합류설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당분간 한국 썬은 외부 인력 영입없이 내부 인력 중심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 사장은 "7월 HP에 사임 의사를 밝힌 뒤 HP 직원들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한국 썬 내부 인력의 능력과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사장은 "최근 대부분의 컴퓨터 회사들이 단순히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보다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썬이 보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고객에 맞게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한국 썬의 내부 조직이 고객 중심적으로 이뤄져 있는 것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며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덧붙였다.

8월 19일 첫 출근한 유원식 사장은 "출근 당일 한국썬 직원들에게 고객 친밀도 강화와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며 "공정한 보상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 친밀도와 파트너십 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썬 직원들이 '공동 경영자'라는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식 사장은 1981년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본부 HP사업부로 입사해 96년 한국휴렛패커드 컴퓨터시스템사업본부 이사, 97년 시스템영업 상무를 거쳐 지난 2000년 기업고객영업본부 부사장직을 역임했다. 특히 최근 HP와 컴팩의 합병을 통해 개편된 한국 HP에서 PSG(Personal System Group) 그룹장으로 임명되는 등 한국 HP의 핵심중역으로 활동해왔다.